

광주 시내버스 파업 끝났지만, 시민 불편 누가 보상하나

대체 투입 전세버스 이용 혼선
첫차 늦어져 새벽 출근길 차질
외곽지역 버스 아예 운행 안해
실질적 이동권 보장 대책 시급



광주 시내버스가 13일간 멈춰섰다. 노조의 파업은 지난 20일 종료됐지만, 그 사이 시민들의 출근길, 등굣길, 귀갓길은 큰 차질을 빚었고, 일상은 크게 흔들렸다. 전세버스 투입으로 응급처방을 했지만, 새벽시간 출근자와 외곽지역 시민들의 이동 불편은 대체할 수 없었다. 시민들은 세금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 적자를 메우는 준공영제 아래, 노조 파업으로 빚어진 불편은 누가 보상해야 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롯데백화점 앞 정류장. 송정19번 노선을 대체해 투입된 전세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얼굴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다. 파업 기간 광주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했지만,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에 도착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시민들은 눈 앞에서 전세버스를 여러 번 놓쳐야 했다.

임남남(60)씨는 “시내버스를 대신한 전세버스인 줄 모르고 계속 놓쳤다. 탈 수 있냐고 묻는 사람도 많고, 안내도 부족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옆에 서 있던 송현식(81)씨는 “도착정보 표시도 없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니 다른 버스를 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분간의 기다림 끝에 전세버스가 도착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시민을 기다렸다. 전세버스 안에는 하차 안내 방송이 없고, 손잡이도 부족했다. 도착지를 몰라 기사를 직접 불러 세워야 했고, 흔들리는 차

량 안에서 넘어질 뻔한 승객도 있었다. 최모(58)씨는 “버스는 깔끔한데 승객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김성근(70)씨는 “시민이 볼모가 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같은 날 새벽 5시50분. 광산구 한 정류장에서 아파트 경비원 박해성(77)씨는 버스를 기다리다 한숨을 내쉬었다. “또 택시를 타야겠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박씨는 시내버스 파업 기간인 13일 동안 매일 같이 새벽에 택시로 출근했다.

박씨는 “원래 첫차를 타면 오전 6시 출근에 맞췄는데, 버스가 안 와서 매일 택시비만 수만 원이 나갔다”며 “보상도 없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남들보다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들은 버스 파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노선의 경우 첫 차 운행시간이 기존 오전 5시40분에서 파업 이후 1시간 가까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정류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한결같이 “더 일찍 준비해야 한다”, “버스를 못 탈까 봐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박설희(56)씨는 “매일 평소보다 30분 이상 일찍 나와야 했다. 배차 간격도 들쭉날쭉해 더 피곤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강미소(17)양은 “6시20분에 타던 버스를 7시 넘어 타야 하니 지각할 때가 많다”고 말했고, 박진우(17)군은 “학교 가는 버스가 없어 한 시간 일찍 나간다. 집에 돌아갈 때도 버스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고 호소했다.

광주의 외곽지역과 인접한 전남권은 아예 버스 공백 상태에 빠졌다. 전세버스나 대체 노선 투입이 안돼 ‘교통 고립’이 현실이 된 것이다.

광주시는 파업 기간 중 일부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은 12회 증편했으며, 혼합한 14개 노선에는 임시 수송버스 42대를 배치했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은 농촌 지역 버스 운행은 중단했다.

▶ 2면에 계속 ▶ 관련기사 2·3면
정유철·정승우·이정준 기자



20일 찾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버스정류장, 이날 파업으로 인해 광주와 장성을 오가는 첨단 193번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한 시민이 다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정준 기자

李 대통령 “외교문제, 여야 공동대응해야”

취임 후 첫 여야 지도부 회동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
“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향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는데,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

고 평가했다.

이어 “G7이 관심을 가진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 관련해서는 잘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가 추진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인사 검증 문제 제기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25 8.30.-11.2.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주최/주관: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
Venue: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Hosts: Gwangju Metropolitan City / Gwangju Biennale Foundation



GWANGJU FUTURE INDUSTRY EXPO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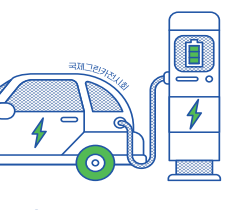
2025
광주



2025.
6.25.수 -
6.28.토

김대중컨벤션센터

미래산업
EXPO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 GJO 광주관광공사